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드 주민 여러분, 우리는 대학 캠퍼스의 다양한 인종 구성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권운동 단체와 대학교육 단체의 단결된 목소리를 통해,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내의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호도하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본 문서와 정책 자료를 제시하시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선거 결과와 최근 시행된 국가 차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아시아인 아메리칸과 퍼시픽 아일랜드 주민들은 소수계 우대정책 (Affirmative Action)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으로 소수계 우대정책은 아시아인 아메리칸 및 퍼시픽 아일랜드의 구직 기회와 대학 교육의 기회를 확장시키는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능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젊은이들의 교육 기회가 축소되고 학생들이 사회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인종구성의 캠퍼스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 이 나라의 대학이라면, 이것은 시대를 거슬러가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비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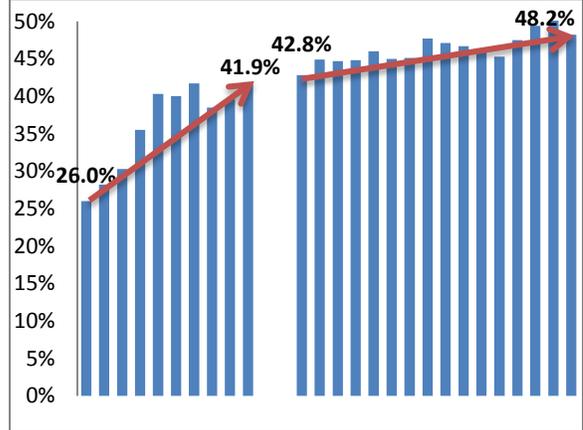
-- 창린 티엔 (Chang-Lin Tien), 전 UC 버클리 대 학총장이자 아시아인 아메리칸/퍼시픽 아일랜드 출신의 최초의 미국내 탐 대학 총장

- 사회과학 연구에 따르면 대학 캠퍼스내의 다양한 인종구성은 학생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른 인종 학생과 어울릴 기회가 많을 수록 타인종에 대해 편견을 덜 갖게 되며, 다양한 인종과 친구관계를 맺는 학생일수록 타인종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자료는 소수계 우대정책이 학생들의 교육적 경험의 질을 향상 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 역시 전반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의대에 재학중인 아시아 아메리칸/퍼시픽 아일랜드 학생들은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의대 교육과정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장차 의사로서 성공적인 역할을 해나감에 있어서 다양한 인종 구성간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소위 “모범적인 소수인종(model minority)”으로 알려진 사회적 선입견과 달리 실제로 많은 아시아인 아메리칸 및 퍼시픽 아일랜드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기회가 적게 제공되고 있으며 학습 성취도 역시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UC 버클리 지원자 현황을 보면 퍼시픽 아일랜드(사모아, 괌, 통가 제도, 하와이 출신)와 동남아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태일랜드, 베트남계), 필리핀계 학생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현재 언론 보도는 주민발의안 209 가 아시아인 아메리칸/퍼시픽 아일랜드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미칠 수 있는 여파를 과장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단 자료에서 보여지듯이 UC 버클리 내의 신입생 중 아시아인 아메리칸/퍼시픽 아일랜드 학생의 비율은 주민발의안 209 가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기 전에 훨씬 더 급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민발의안 209 시행전 (1988-97) & 209 시행후 (1998-2013): UC 버클리 캠퍼스의 아시아인 아메리칸 및 퍼시픽 아일랜드 신입생 구성의 변화 추이 (유학생 제외)



-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아시아인 아메리칸 및 퍼시픽 아일랜드의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한시키는 것은 소수계 우대정책이 아닌 대학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인 아메리칸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젊은이들이 더 나은 교육적, 경제적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는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주립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교육 분야의 경제적 투자 역시 현명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촉구해야 합니다.